

“영화는 시대 비추는 창...배우가 좋은 소재 돼야”

‘한국영화의 살아있는 역사’ 김지미를 만나

“20대 때도 할머니 분장하고 노인 역을 했지 서른 편 연달아 찍던 시절...내 작품은 미완 17세로 돌아간다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영화 작업? 내가 못다 이룬 건 후배들의 몫”

배우는 역시 배우다. 1940년에 태어나 17세 때 배우가 된 김지미는 여든에 접어들었지만 기품 있는 외모, 흐트러짐 없이 깨끗한 자제, 카리스마 넘치는 말로 인터뷰를 압도했다. ‘걸크러시’의 원조를 찾는다면 아마도 그일 것이다. “절대로 숨어 행동하지 않았고 솔직했다”며 지난 삶을 돌아본 그는 “연애를 해도, 사랑을 해도, 늘 내 행동을 책임져왔다”고 했다.

이뿐이랴. 한국영화 100년사에서 김지미는 무려 63년의 발자취를 남긴 최고의 스타다. 출연작만 모두 700여 편(부산국제영화제 자료)에 달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특별프로그램 ‘김지미를 아시나요’를 기획해 ‘장희빈’ 등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김지미가 직접 나선 오픈토크를 마련한 이유이다.

6일 부산남포동에서 ‘빛나는 배우’ 김지미를 만났다. “나를 아껴주고 기억하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려고 오랜만에 밖으로 뛰어나왔다”며 웃는 그는 19년 전 미국 LA로 이주해 두 딸, 여섯 명의 손주와 살고 있다.

한국영화계 대표 인물이지만 정작 그는 “내 작품은 전부 미완성”이라고 했다. “12일 만에 찍기도 하고, 서른 편을 연달아 찍던 시절 나온 영화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엔 기능공처럼 만들었으니 완성도가 떨어져요. 이 영화 찍고 있는데 다음 영화 팀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압박



감이 컸죠.”

길거리에서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어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김지미는 서구적인 외모와 과감한 스타일로 장르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1960년대 양영란, 윤정희, 남정임이 ‘트로이카’로 불리면서 로맨스 영화로 경쟁했지만 나는 20대 때도 할머니 분장하고 노인 역까지 했다”며 “그렇게 연기한 배우는 그때 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지미는 창작의 자유가 억압받던 1980년대 “정신 제대로 박힌 영화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영화사 지미필름을 세우고 제작도 했다. ‘티켓’ ‘길소뜸’ 등 당대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를 직접 만들었다.

삶의 대부분을 ‘배우’로 살아왔지만 17세 때로 돌아간다면 배우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해!”라는 답이 돌아왔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부산스럽게 살면 안 되지. (웃음) 두 딸에게 엄마로서 해준 게 없어요. 직접 기르질 못했어. 그 빛을 손자손녀들 키우면서 갚았어요. 지금 내 삶이 가장 행복해요.”

경험자만 할 수 있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배우는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 영화는 시대를 비추는 창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영화와 감독에게 좋은 소재가 되어야 해요.”

영화 작업에 뜻이 있는지 묻자 그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다”며 “내가 못다 이룬 건 후배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남포동(부산) |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6일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김지미는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곳곳에 곳곳 배우의 카리스마를 뽐내었다. 사진은 이번 영화제의 특별프로그램 ‘김지미를 아시나요’ 주인공으로 3일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해운대(부산) | 뉴시스

부산국제영화제 달군 스타들

3일 개막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채로운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서 ‘화려한 주말’을 보낸 3인의 스타가 있다.

류승룡, 영화제도 ‘극한직업’ 처럼



‘극한직업’ 출연 배우들

●...1600만 관객이 선택한 ‘극한직업’의 류승룡은 개막식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5일까지 해운대 일대에서 각종 행사와 파티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지만 축제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화제의 첫 주말을 알차게 보낸 뒤 6일 오후 부산을 떠나 ‘자산어보’ 촬영현장인 흑산도로 직행했다.

개막식 MC 이하늬 해외진출 선언



이하늬

●...정우성과 함께 개막식을 진행한 이하늬는 해외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의 할리우드 에이전시인 AIG의 데이비드 영거 대표와 만났다. 12월부터 한국·프랑스 공동제작 드라마 ‘클라우스 47’ 촬영을 시작한다고도 알렸다. “문화적으로 다른 코드를 지닌 작품에 도전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윤아, 행사장마다 팔색조 변신



임윤아

●...개막식 레드카펫부터 조정석과 함께 나선 ‘엑시트’ 오픈토크, 아시아스타어워즈 등 다양한 행사에 나설 때마다 팔색조처럼 변신해 시선을 붙잡았다. 개막식 때 입은 셋노란 드레스가 단연 화제. ‘개나리 같다’는 반응에 임윤아도 활짝 웃었다.

해운대(부산) | 이해리 기자

“한·일 정치 갈등, 영화인들의 연대·표현 중요”

日 영화계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인이 연대하고 이를 내보여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57) 감독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최근 약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고난을 겪을 때 영화인들이 더 깊게 연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나도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상 수상자인 그는 새 영화 ‘파비안’에 관한 진실’을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내놓은 첫 작품인 만큼 관심이 뜨겁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5일 부산에 도착해 시상식과 관객과 대화 등 일정을 부지런히 소화하고 있다. 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일본 우익의 공격이 우려되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

명이 더해진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예상한 질문”이라면서 웃어보였다.

“5년 전 즈음 부산국제영화제가 정기적인 입력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도 미려하게나마 목소리를 내 연대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힌 그는 ‘영화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파비안’에 관한 진실’은 감독의 명성답게 올해 영화제 최대 화제작이다. 프랑스 명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쥘리엠티 비노슈가 주연해 모녀 사이에 감춰진 비밀과 갈등, 화해의 이야기를 펼친다. 감독은 “연기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해운대(부산) | 이해리 기자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

www.infodb.co.kr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꼭꼭 채워줍니다.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는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출출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